



Hana Market Weekly

달러/원·엔·유로환율·금리·주식

자금시장영업부

2023. 6. 12

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,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.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,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.



주간 달러/원 동향(6/5~6/9) 및 전망



주간 달러/원 동향

- 주초, 미 5월 비농업부문 고용 큰 폭 증가한 가운데 실업을 감소, 시간당 평균임금 하락 등 혼재된 고용지표에 연준 긴축기조 지속에 대한 우려감 높아지면서 소폭 상승 출발
- 중반 들어, WB의 세계 및 미국 경제성장을 상향 조정 소식에 경기침체 리스크 완화되면서 글로벌 위험선호 심리 회복된 영향으로 하락 전환
- 후반, RBA, BOC의 예상 밖 금리인상 결정으로 Fed 추가 긴축 경계감 강화되며 리스크는 분위기 약화되었으나 역외 위안화 강세 영향으로 하락. 이어, 미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예상치 상회함에 따라 6월 FOMC 금리동결 전망에 무게 실리며 위험선호 심리 강화된 영향으로 1291.5원으로 큰 폭 하락 마감

달러/원 전망

- 연준이 7월 추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분위기이나 5월 CPI의 추가 감소 가능성 및 최근 주간 실업보험 청구건수가 증가한 측면 등에 따른 동결 가능성 확대가 시장 전반을 지배하는 분위기에서 환율은 소폭 하락 추세 이어갈 것으로 예상
- 하지만 최근 중국 경제지표가 부진함에 따른 위안화의 추가 절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은 원화 강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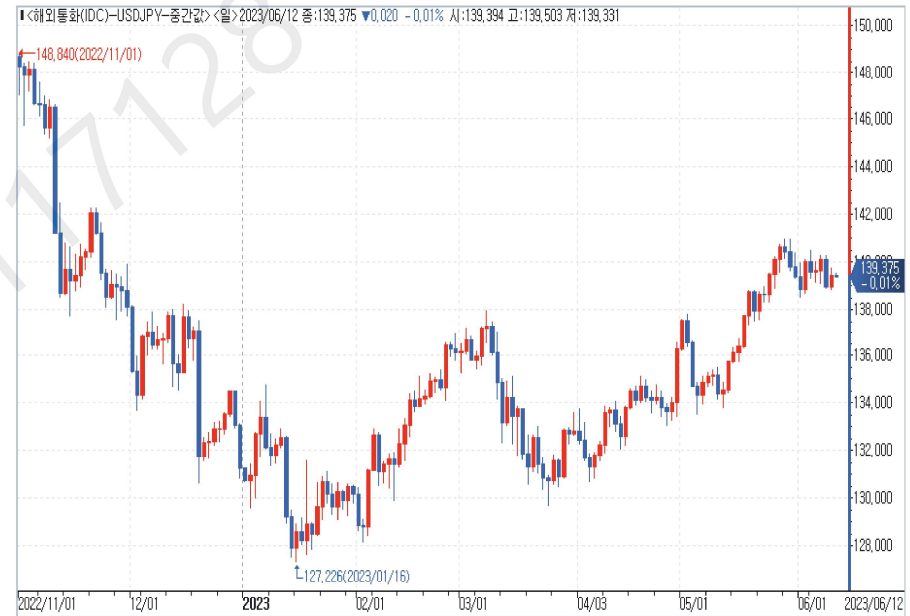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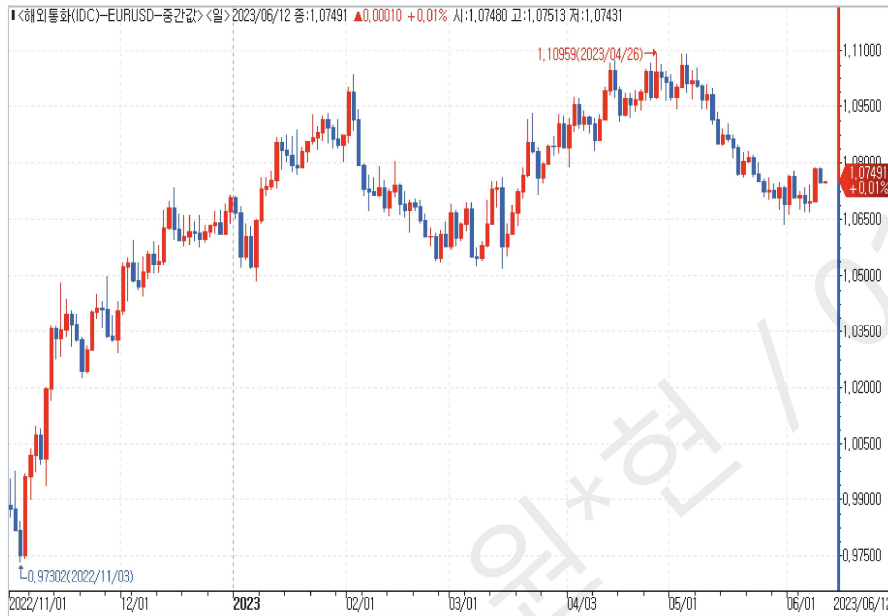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,307.0	1,311.0	1,291.1	1,291.5	-15.5

예상거래범위

1,285원 ~ 1,300원



엔·유로화 동향 [6/5~6/9]



유로화 동향

- 주초, 미 ISM 5월 서비스업 PMI 하락 등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달러 약세 흐름 속 유로화 강세 출발. 이어 4월 유로존 소비지표 부진, 독일 제조업 수주 감소 등에 유로존 경기침체 우려 확대되며 약세 전환
- 중반 들어, 주요국 중앙은행 추가 금리인상 단행한 가운데 유로존 인플레이션 기대치 큰 폭 하락했음에도 ECB의 매파적 스탠스 지속 예상되며 소폭 강세 전환
- 후반 들어, 미 실업수당 청구 증가 소식에 6월 FOMC 금리동결 기대감 높아진 측면 반영하며 리스크온 분위기 속 강세 지속. 이어 주 후반, 유로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기록과 이에 따른 ECB 긴축 사이클 종료 가능성 확대 등으로 약세 전환하며 마감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.0708	1.0787	1.0667	1.0748	+0.0040

엔화 동향

- 주초, 미 노동시장 여전히 견고한 양상 보였음에도 실물 경제지표 둔화에 따른 연준 추가 긴축 경계감 약화 등 반영하며 엔화 강세 출발. 이어 일본 4월 가계지출 감소, 임금 하락 등 경기침체 우려 지속됨에 따라 약세 전환
- 중반, RBA에 이은 BOC 금리인상 결정 후 Fed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감 높아짐에 따라 일본과의 통화정책 차이 재차 부각된 영향으로 약세 지속
- 후반 들어, 일본증시 부진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와 6월 FOMC 금리동결 전망 반영한 미국채 수익률 하락 및 엔캐리수요 감소 영향 등으로 강세 전환. 이어 주 후반, 일본증시 반등에 따른 리스크오프 약화와 BOJ 총재의 연이은 비둘기 발언으로 약세 흐름 전환하며 마감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39.9	140.5	139.2	139.4	-0.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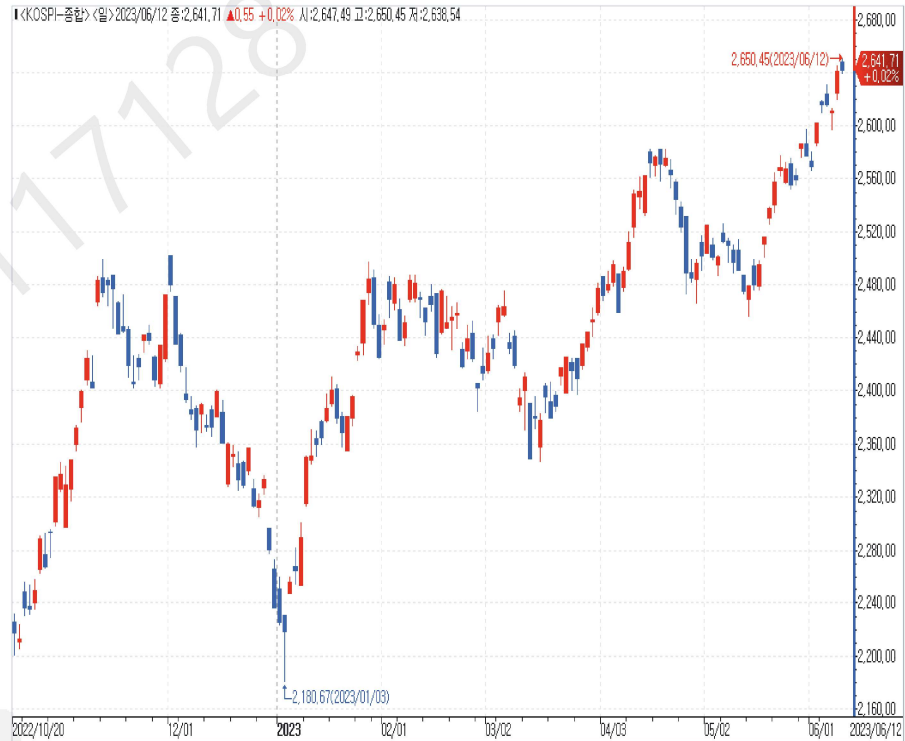


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[6/5~6/9]



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

- 주초,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의 호조에 따른 연준 추가 긴축 우려 등의 영향 반영 속에 상승 출발
- 중반 들어, 호주 중앙은행의 25bp 금리 인상에도 미국의 경기 둔화를 나타낸 지표 발표와 중국 무역관련 지표 부진 등으로 하락 전환
- 후반 들어, 호주중앙은행에 이은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따른 연준의 물가 대응 경계감 강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시장 분위기 등으로 국내의 금리는 재차 상승 전환 후,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6월 연준 금리 동결 분위기로의 재전환 속에 미 국채금리 하락 영향을 반영하며 국고채 금리도 하락 전환하며 마감



주간 증시 동향

- 주초, 미국 5월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혼풍 속에 국내 반도체 업종 매출 출회를 제외한 주요 업종들의 상승세를 반영하면서 상승 출발. 이어
- 중반 들어, 차주 예정된 FOMC 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국면과 반도체 차익매물 확대 등에도 소폭 강보합 시현
- 후반 들어, 캐나다 중앙은행의 전격적 25bp 금리인상에 따라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인식 등에 따른 외국인 매도 강화 등으로 하락 전환 후, 주 후반, 미국 반도체주 강세에 따른 영향과 주간 실업보험 청구건수 급증에 따른 6월 금리 동결 가능성 증대의 영향이 반영되며 큰 폭 상승 전환하며 마감